

< 백두반 학 습 지 도 안 >
2018 학년도 봄학기(6 주차) 3 월 31 일
*** 백두반 담임: 남일 교장 ***

단원명	백두반/졸업반 수업 6주차 (6 of 15)			
교재	한국어 문법-관용표현/Usage & 읽기와 쓰기 및 발표하기			
	'맛의 말, 말의 맛'-한글맞춤법, 한자검정 6/7급(1-3)			
	읽기용 교재, SAT한국어 책자 & 역사/문화관련 교재(자체 교재)			
본시 지도 목표	지난 주간	1) 17명 출석/김해나 채인욱 (2명) 결석 2) 읽기 및 번역(6주차) 팀별로 기존 작문대회 출품작 번역해 보기 → 제출한 팀은 Extra point(5)를 주어줍니다.		
	이번 주간	1) TA: 11:30~10:30 * 미술반과 민화반 등에서 오후반 보조를 할 수 있는 학생 → 1.5시간 크레딧 3) 수업: 한국어 국문법 연구 및 토론 & 읽기와 번역(영어→한글로 번역하기)		
3월 백두반 반장: 최유민 최재경 (4월 7일까지) → 9시 20분까지 249호 교실로				
담당: 남일 교장		장소	시간	기타/평가
1교시 *9:30-10:50	12회 교내작문대회	249	60분	감독: 김은아 선생님
10:50-11:00	휴식		10분	
2교시*11:00-11:40	수업(1)	249	40분	
11:20-11:40	휴식		20분	
3교시*11:40-12:40	수업(2)	249	1시간	

2018학년도 봄학기 (백두반)주요 학사일정

일정	내용	비고/기타
2018년 3월 31일	12회 교내 작문대회	졸업/수료에 필수-참가자 가산점수
졸업사진(1차)	*8시 40분부터 *장소: 강당	김하은 김해나 최에스더 홍준규
2018년 4월 07일	NE지역 글짓기 대회	졸업/수료에 필수-참가자 가산점수
2018년 4월 07일	12회 교내 작문대회 시상식	강당 (3교시 예정)
4/7 졸업사진(2차)	*8시 40분부터 *장소: 강당	이지윤 이하운 이한별 정기려 정기호 정기채
4/14 졸업사진(3차)	*8시 40분부터 *장소: 강당	김태연 박형은 이인상 이하은 조유빈 채인욱
2018년 4월 21일	봄 방학/Spring Break	
2018년 5월 5일	제 12회 한영/영한번역대회	졸업/수료에 필수-참가자 가산점수
2018년 5월 5일	학부모회 주관 봄 바자회	카페테리아
2018년 5월 12일	졸업식/수료식 리허설	강당
2018년 5월 19일	2018학년도 졸업/수료식	10시-11시 반 예정/강당
2018년 6월 02일		
2018년 6월 16일	종강식 및 학예발표회	

★ 졸업생 사진촬영: 3월 31일 - 4월 7일 - 4월 14일 (3주간) 8시 40분까지 강당으로!

★ 졸업생 학부모 인터뷰(20초 이내): 졸업식 사진촬영 주간에 가질 계획입니다.(준비 부탁)

<1> 백두반 주요 알림: 과제물(숙제)는 매주 학교에 오면 반장 학생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2> 5가지 에세이 제목 (지난 주 학생들에 의해 선택/영어2 & 한글3)

- 1) 졸업사: 졸업 Speech (4월 21일까지)
- 2) 우리 가족: 3월 17일 숙제 (3월 24일까지 제출)
- 3) 내가 아끼는 것: 3월 24일 숙제 (3월 31일까지 제출)
- 4) 친구에게 편지쓰기: 3월 31일 숙제 (4월 07일까지 제출)
- 5) 내가 가고 싶은 여행: 4월 07일 숙제 (4월 14일까지 제출)

← 이번 주 제출 과제물

<4> 졸업식 때 발표/연주할 곡명: You raise mu up.(영어와 한글로 예정)

- 합동연습: 4월 7일부터 2, 3회 정도 연습할 예정이며 그 전에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연습함
- 악기: 박형은/홍준규(Viola) 김산 이하은(Cello) 채인욱 김태연(Violin) 김하은(Piano)
- 합창: 김해나 이인상 이하은 이지윤 조유빈 최에스더 최유민 최재경
이한별 정기려 정기채 정기호

출석/숙제/보조교사 시간 및 Point 합계(3월 24일까지)

3월 반장: 최유민 최재경

<그룹 A>

이름	김 산	이인상	김태연	김하은	김해나	박형은	이하은	이하은	이지윤	채인욱	조유빈	최에스더
TA학급	신라2 신라1		은도끼반		금도끼반		놀부반		토끼반		가을2반 겨울반	
반장	9월		10월		11월		12월		1-2월 24일		3월 3-17일	
출석	0	0	0	0	X	0	0	0	0	X	0	0
출석(P)	17	15	16	18	14	18	20	12	19	11	20	16
숙제	1	-	1	-	1	1	1	-	1	-	1	-
숙제(P)	10	5	13	13	9	12	15	8	15	14	14	10
TA	1	1	1	1	-	1	1+1.5	-	1	-	1	1
TA(합)	22.4	21.4	18.9	24.7	15.3	24.3	28.1	11.5	22.4	13	24.1	24.1
과제PT			5	5		5	5		5			5
과제PTT	-	-	10	20	15	20	20	10	20	15	10	20

<그룹 B>

이름	최유민	최재경	이한별	홍준규	정기려	정기채	정기호	
TA학급	백제반	거북이반	가을1	신라1반	신라2반	해님반	달님반	
반장	3월 24-4월 7일		4월 14-5월 5일		5월 12일~6월 2일		6월 9일~16일	
출석(봄)	0	0	0	0	0	0	0	
출석(P)	4	5	5	5	4	4	4	
숙제	-	1	1	1	1	1	1	
숙제(P)	1	3	3	3	3	3	2	
TA	2.1	2.9	1.4	1	1	1	1	
TA(합)	6.1	8.3	6.8	6.4	5.4	5.4	5.4	
과제PT		5	5	5	5	5	5	
과제PTT	5	10	15	15	15	15	15	

49

해치다 / 헤치다

해치다 사람의 마음이나 몸에 해를 입히거나 상태에 손상을 입혀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해요. '해치어(해쳐)', '해치니' 등으로 활용돼요.

헤치다 덮인 것을 파거나 젖혀 속의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또 앞에 걸리는 것을 훌어 놓을 때, 방해되는 것을 이겨 나갈 때도 써요. '헤치어(헤쳐)', '헤치니' 등으로 활용돼요.



어떻게 쓰였는지 따라 쓰며 익혀 보세요.

담배와 술은 건강을 **해친다**.

담배와 술은 건강을 해친다.

흙을 파**헤쳐** 타임캡슐을 꺼냈다.

흙을 파헤쳐 타임캡슐을 꺼냈다.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다.

거친 물살을 헤쳐 나가다.

어려움을 **헤쳐** 나가다.

어려움을 헤쳐 나가다.

백두반 숙제 *봄학기 6주(3월 31일)

한글맞춤법 및 올바른 활용: 햇볕 & 햇빛

햇볕 / 햇빛

햇볕 해가 내리쬐는 기운을 말해요.

햇빛 해가 내뿜는 빛을 말해요.

50



어떻게 쓰였는지 따라 쓰며 익혀 보세요.

한여름 **햇볕**이 뜨겁다.

한여름 **햇볕**이 뜨겁다.

햇빛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다.

햇빛이 눈부셔 눈을 뜰 수가 없다.

햇볕

햇볕을 쬐다.

햇빛

햇빛이 비치다.

백두반 숙제(한자 부문-No.4) 3월 24일
 8급-초급1 & 7급-초급2
한자급수 쓰기노트-8 급 (1)

30. 왕(王) 임금 왕 **字解** 王: 玉(구슬 옥, 0 획) 총 4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wáng, wàng, yù [영어] king, ruler; royal; surname [일본어] オウ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王

31. 우(牛) 소 우 **字解** 牛: 牛(소 우, 0 획) 총 4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niú [영어] cow, ox, bull; KangXi radical93 [일본어] キュウ

牛	牛	牛	牛	牛	牛	牛	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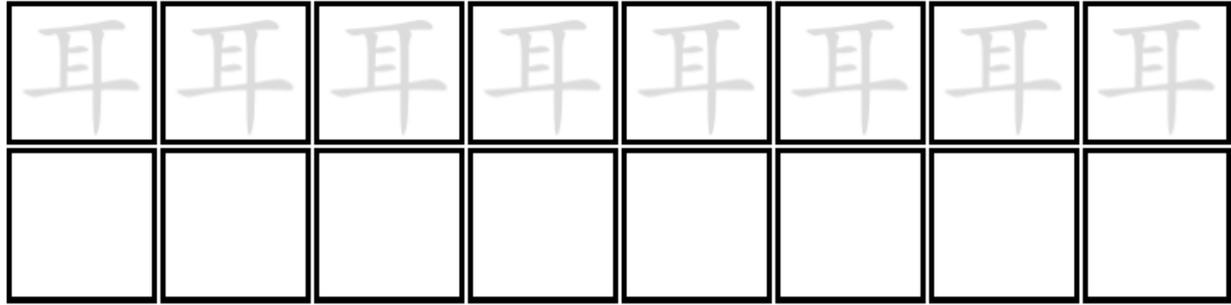
32. 월(月) 달 월 **字解** 月: 月(달 월, 0 획) 총 4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yuè, rù [영어] moon; month; KangXi radical 74 [일본어] ゲツ, ガツ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月
---	---	---	---	---	---	---	---

33. 이(二) 두 이 **字解** 二: 二(두 이, 0 획) 총 2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èr [영어] two; twice [일본어] ニ, シ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	---	---	---	---	---	---	---

34. 이(耳) 귀 이 **字解**耳: 耳(귀 이, 0 획) 총 6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ěr, réng [영어] ear; merely, only; handle [일본어] ジ, ジョ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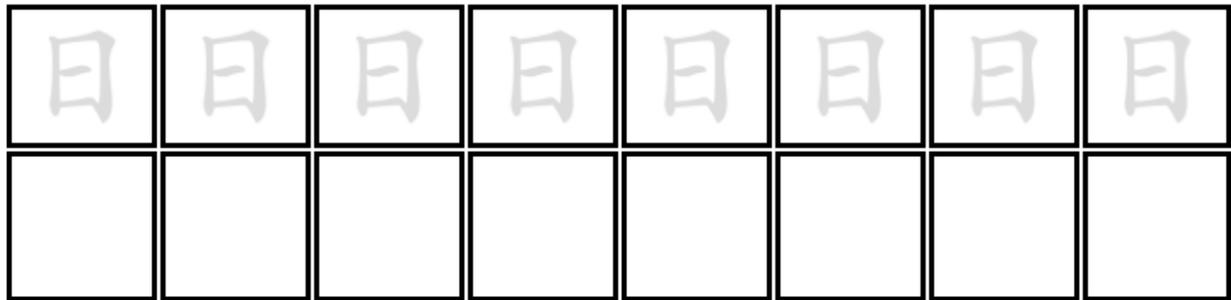
35. 인(人) 사람 인 **字解**人: 人(사람 인, 0 획) 총 2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rén [영어] man; people; mankind; someone else [일본어] ジン, ニン
 人人



36. 일(一) 한 일 **字解**一: 一(한 일, 0 획) 총 1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yī [영어] one; a, an; alone [일본어] イチ, イッ
 一



37. 일(日) 해 일 **字解**日: 日(해 일, 0 획) 총 4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성] rì [영어] sun; day; daytime [일본어] ニチ, ジッ
 日日日日



* 한자급수 쓰기노트 7급 (4) *

86. 촌(村) 마을 촌 字解 村: 木(나무 목, 3 획) 총 7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cūn [영어] village, hamlet; uncouth, vulgar [일본어] ソン

村村村村村村村

村	村	村	村	村	村	村	村

87. 추(秋) 가을 추 字解 秋: 禾(벼 화, 4 획) 총 9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qiū [영어] autumn, fall; year [일본어] シュウ

秋秋秋秋秋秋秋秋秋

秋	秋	秋	秋	秋	秋	秋	秋

88. 출(出) 날출 字解 出: 凵(입벌릴 감, 3 획) 총 5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chū [영어] go out, send out; stand; produce [일본어] シュツ, スイ

出出出出出

出	出	出	出	出	出	出	出

89. 편(便) 편할 편, 똥오줌 변 字解 便: 人(사람 인, 7 획) 총 9 획 [수준] 중학교용
 [중국어 4 성] pián, biàn, biān [영어] convenience, ease; expedient [일본어] ベン, ビン

便便便便便便便便便

便	便	便	便	便	便	便	便

읽기 & 이해하기 * Team Competition(3)
 한국어 관용표현 (3월 31일) Korean Grammar & Usage(6) ‘편찮다’

‘아프다’의 높임말은 ‘편찮다’이다. 살면서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마도 나를 포함하여 가족과 친구들이 아픈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 인사말에 ‘건강하세요.’를 쓰는 것은 아픔이 가져다주는 공포가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픈 것은 무엇일까?** 물론 아픈 것은 신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인 아픔도 매우 크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아픈 것이 더 참기 힘들다.

‘편찮다’라는 말은 ‘아프다’를 높이는 말로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픔을 직접 언급하는 것이 꺼려져서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완곡하다는 말은 부드럽다는 의미도 되고, 돌려 말한다는 의미도 된다. 옛말을 보면 우리는 주로 병에 대한 어휘를 피하려고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병의 이름을 ‘마마’라고 아주 높게 부르기도 했다. ‘상감 마마’, ‘왕자마마’ 등 옛날엔 임금님께나 부를 만한 호칭을 병에 붙이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픈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다.** ‘편찮다’는 말은 바로 ‘**편(便)하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다. 편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아프다는 말 대신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불편(不便)하다**’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 ‘어디 불편하세요?’라는 질문도 몸이 무언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의사 선생님들도 어디가 아프냐는 질문보다는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는 질문을 선호하는 듯하다.

‘아픈 것’과 ‘편찮은 것’은 느낌이 좀 다르다. 아픔에는 직접적인 고통이 느껴지지만 편찮은 것은 그것보다는 범위가 훨씬 넓어 보인다. 아프지는 않지만 불편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편찮음에는 예방의 차원도 엿보인다. 아직 아프지는 않지만, 왠지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 때도 편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 때는 단순히 지금 아프지를 묻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라도 불편한 곳이 있는지도 미리 살펴야 한다. 몸이 **으슬으슬**하다든지, **찌뿌둥**하다든지 하는 것도 아프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 편찮은 것이다. **잔기침을 시작한다든지 앓았다 일어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다. 아픈 것과 달리 편찮음에는 관심도 필요하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야 편치 않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어르신들이 편치 않은 가장 큰 문제도 역시 ‘**마음**’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사소한 일에도 금방 불편해 지고, 금방 좋아진다. 특히 나이를 먹으면 금방 서운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감성적이 되어가기 때문에 누가 내 감정을 살짝만 건드려도 감정이 상하고 서운해진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나?’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서운해지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인 듯하다. 어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을 늘 고민해야 한다. 아픈 것은 치료가 필요하지만 편치 않은 것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 방의 바닥 온도를 살폈고, 밤에 마실 물인 자리끼를 갖다드렸다. 그러고는 편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드렸다. 물론 아침에는 편히 주무셨냐는 인사를 드렸다. 부모님의 편한 상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요즘 우리는 어른들께 너무 관심이 적은 것은 아닌지 반성이 된다. 어른들을 편히 모시는 것이 효도다.

